

# 한·중 미생물 학회를 다녀와서

유전공학연구소 이 영 익

## 1. 서 언

아침 9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멀다고만 느껴졌던 중국 상해에 단 1시간 40분만에 도착하였다 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1992년 FAOB에 이미 참석한 바 있는 이상기 총무의 안내를 받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해 비행장의 첫 느낌은 서구식으로 현대화하는 중국인들의 노력을 대변해 주듯 끼끗한 느낌을 받았다.

상해 공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안내인 Mrs. Lee가 강한 이북 사투리를 쓰면서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았으며, 조금 있다가 오여사라고 불리는 이색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의 영접을 받았다. 오여사는 학회 통역을 위해 북경의 당에서 파견된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등의 일정을 듣는 사이에 웃지 못할 촌극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일행중 김무진 회장님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중년 중국여인이 와서 무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Mrs. Lee 얘기로는 금연지역이므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또 위험했으므로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할수없이 2원(한국돈 200원)의 벌금을 물고 모두를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허름한 중년여인이 완장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보니, 어느 누가 비행장에 속해있는 금연 단속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비행장 곳곳에 걸려있는 Marlbor 담배선전 포스터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짐을 호텔로 보내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일행은 중국인의 상술(?)에 감탄하는 눈길을 보였다. 식당에 들어서는

입구에 진열하여 있는 많은 물건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였다.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을 일단 지나서 식사하러 가야하니, 안볼래야 안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으니, 자연 판매를 할 것이 아닌가?

식사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 생각보다는 푸짐하게 나왔다. 빙빙 돌리는 원탁식탁에 7~8가지가 나오니 일류는 아니더라도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였다. 2년전 소련에 가서 배를 곯다가 온 필자로서는 이번 여행은 단단히 준비하자는 마음에 여행가방의 1/3을 보글보글면, 김치, 고추장으로 채워 넣었으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점심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리를 방문하였다.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옛 임시정부 자리에서 그옛날 스쳐간 많은 애국지사들의 체취를 느끼는 것 같았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방문한 후에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에 들어가, 현재 수리중인 관계로 내부는 드러다 보지 못했으나 까만 문앞에서 각자의 포즈를 취해 사진 한장씩을 기념으로 찍었다. 입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관 접대소에 가서 한국미생물학회 일동 명의로 적은 돈이나 일부를 기부하고 감회깊은 마음으로 다음 행선지인 홍구공원과 송경령 여사 기념관을 참관하였다.

홍구공원에서 유봉길 의사가 일본 백천 육군대장을 향하여 폭탄을 투척한 곳을 방문하고, 이곳이 그 유명한 홍구 공원이냐 하면서, 그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두가 기념촬영을 하였다.

송경령 여사는 손문선생의 부인이 되는이로서 송미령 즉, 장개석 전총통의 언니되는 이로서 최근까지 중국의 국모로서 대우 받았던 인물이었다. 시간을

내어 오여사의 안내로 송경령 여사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부모는 일찌기 미국에 가서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다. 이들 부모는 2남 3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딸 셋을 모두 미국교육을 시켜 신식여성으로서 양육하였다. 딸 셋을 출가시켰는데, 미령은 장개석에게, 애령은 중국 제일 부자에, 경령은 손문에 시집 보냈다 하니, 딸들 시집보내는데 특출한 재주를 지녔나 보다. 젊었을 때의 가족 사진을 보고 말로만 듣던 송애령, 미령, 자매의 미모를 보고, 정말 절세미인이라 하며 감탄하였다. 기념관은 송경령 여사의 일대 활약상을 기념하였으며, 모태동으로부터 국모칭호를 부여받을 정도로 중국 국민이 아꼈던 인물이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거리는 1200만이 산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집집마다, 거리거리에 남루한 빨래가 널려 있었다. 상해 및 몇몇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Mrs. Lee의 설명이다.

다음날 아침 학회일까지 하루가 남아 있어 상해에서 2시간 걸리는 소주에 가기로 하였다. 소주는 원래 “물의 도시”라하여 시가가 외성이라고 하는 운하로 둘러 쌓여 있었다. BC 514년에 오나라왕 합려가 이곳에 약 24 km의 성벽을 쌓으면서 소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송때부터 이곳에서는 자수와 비단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시내 곳곳에 그 옛날의 번영을 자랑하듯 아름다운 저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다.

소주시의 서남쪽에는 커다란 태호라는 호수가 있어서 이 호수의 물은 소주를 거쳐서 장강으로 흘러든다고 한다. 그래서 시내에는 거미줄처럼 운하가 발달하였으며 중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소주에 내려서 현지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 자수 공장에 들르기로 하였다. 소주자수는 손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다. 안내의 안내로 자수학교에 가니, 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림원본을 놓고 가느다란 바늘에 명주실을 걸어 수를 놓기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손님이 오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인 특유의 음성으로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한올한올 정성껏 한 작품을 만들려면 적어도 3~4달 잡아야 한다니,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물건 한개의 값이 \$100 정도이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여튼 이들을 각자의 임무만

완성시켜 놓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니,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는가보다. 앞을 보면 케네디가 나오니, 뒤를 보면 재크린이 나오니, 어떻게 수를 놓았는지 참으로 수수께끼이다. 오랜세월의 연마로 이루어진 경지라고나 할까.

자수학교 시찰을 마치고, 소주의 명물인 운하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소주를 엮어놓은 운하의 길이가 197 km라고 하니 그 규모가 가히 짐작이 간다.

또한 이 운하를 완성시킨 이가 진나라 시왕이라 하니, 진시왕이란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행중 한분의 이유를 들면 “약간 간 사람”이라고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약간” 정도가 아닌 “많이”라고나 할까. 꼬불꼬불한 운하를 멀리서 보면서 2000년 전에 완성했다는 다리를 건너면서 그 시대의 다리 건축술이 이처럼 발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한지 조금만 지나면 금이간다. 아니 짓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는 한강의 모다리를 생각하며, time machine이 있으면 교량 건축업자를 진시왕한테 보내 좀 배우도록 하였으면...

안내인의 안내를 받아 운하도시를 구경하였다. 그 옛날 지은 허름한 성곽이 운하 사이에 우뚝 서있고 성문이 닫치면 이 도시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니, 베니스를 연상케 하였다. 그 옛날 마르코폴로가 이곳을 방문하여 동양의 베니스라고 하였다 하니 마르코폴로란 사람 또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지? 중국의 이곳까지 그 시대에 방문하여 동양의 베니스 운운하였으니.

소주에는 송·원·명·청·각 시대의 정원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중 유명한 정원이 4개가 있는데 이중 유원을 방문하였다. 대개의 건축양식은 상해외 예원과 비슷하였으나, 규모 면에서 예원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 예원은 명나라 때 서시태라는 부호가 개인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부분마다 색다른 취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원 방문을 마치고 중국춘추시대 때 오나라 왕의 묘가 있는 호구를 방문하였다. 소정방의 시에 “천하 제일의 절경”이라 칭송하였다하니 그 당시 아름다움이란 가히 짐작이 가는듯 하다. 호구입구에 언덕까지 태워다 작은 가마가 있었으며, 가격은 2원(약 200원)이라 하나, 가마꾼의 행색으로 보아 체중 50 kg 이하의 손님만 적절한 듯 하여 모두 사양하는

눈치였다. 이 호구는 면적이 20 ha라 하며, 명소와 고적이 40여군데 있다고 한다.

올라가는 길에 돌로 층층이 지는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왕의 보물을 모두 이 호수 밑에 묻었다고 한다. 땅을 수십척 파서 보물을 묻고, 돌로 수십척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연못을 만들었다 하니, 천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느 누구 감히 파헤칠 생각을 못하게끔 완전무결하다고나 할까. 호수 옆 벽면에는 돌에 검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왕희지 필체로 시가 써 있었으나, 한문에 짧은지 아니면 과묵한 소치인지 어느 누구도 Comment가 없어 그대로 스쳐야만 하였다. 언덕위에 호구탑은 피사의 사탑보다도 더 옆으로 누워 있으니, 기념사진 찍을 때, 사람보고 똑바로 서라는 농담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곤 하였다. 밑에 가니 곧 쓰러질 것 같은 탑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걸 보니 이것도 무슨 건축술의 비법인지. 점심 후 비단공장 구경시켜 준다 하여 따라가니, 비단공장 구경 전에 fashion show를 일단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중국 남방 미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찌 그렇게 선녀들 같은지 일행 모두가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하였다. 비단 입은 미인을 보고 옆방으로 가니 역시 비단 판매소.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비단 입은 남방미인을 연상하며, 비단 옷가지를 사는 일행을 보니 역시 중국 상술은 세계 최고인가 보다.

3일째인 4월 2일에 한·중 Applied Biotechnology Conference가 시작되었다. 학술회의는 상해 미생물학회 회장인 Weu Yu-Mei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민태익 소장님의 대신으로, 유한 케미칼의 남궁걸 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이 되었다. 인사말의 통역은 오여사의 능숙한 통역으로 이루어졌다. 학술회의는 두 group으로 나누어 졌으며, A group은 학술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B group은 주로 산업체에 관심이 있는 품목별로 여러 group으로 나누어 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대표들은 A group에 5명이 발표를 하였으며, B group에는 8명이 참가하여 각 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B group은 남궁걸 부사장의 사회와, 상해 생화학연구소의 Li Yo-rong 박사의 공동 사회로 이루어졌다. 이 group의 토의제목은 mitomycin C, adriamycin, Daunomycin, Amikacin, Cyclosporin A, Aclacinomycin, Micronomicin, ginfengmycin, Lactase, riboflavin, 7-ACA, Bacitacin 등의 제품 topic을

가지고 산업적 응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A-group에서는 주로 응용 및 순수 미생물에 관한 topic을 가지고 Semina후,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오전 Semina는 우리측의 이상기 박사, 중국의 Yang Seng-Li 박사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연제는 "Genetic engineering and protein engineering of pharmaceutical protein"이라는 상해 생화학 연구소의 Liu Xin-Yuan 박사의 강연이었다. Liu 박사와는 필자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연구소 (Rohe 분자 생물학 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어 어떤 내용인가 상당히 궁금하였으나, Liu 박사는 북경에 일이 있어 못나오고 조교가 나와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lambda PL pronoter를 이용한 인간의  $\gamma$ -Interferon과, IL-2의 발현 정제에 관한 연구내용이었으며, IL-2를 이용한 LAK therapy에 대한 이야기였다. 또한 IL-2의 *in vitro* mutagenesis를 이용하여 가장 안정된 IL-2를 생산하였으며, Streptokinase와 TNF도 생산한다는 이야기였다.

질의시간에 lambda PL expression vector가 Roche 연구소의 고유 특허 발현 vector인데, 또  $\gamma$ -IFN 유전자, IL-2 유전자에 대한 미국 특허를 어떻게 빠져 나가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자, 발표자 및 Yang박사는 1986년 이전의 모든 연구는 미국과 상호 협정아래, 특허를 인정 안하기로 하였기에, 1986년 이전의 연구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현재 미국의 N.I.H.에서 LAK therapy에 관해서, 별로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여 이 therapy 대신에 gene-targeted therapy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진다는 comment도 나왔다. 하여튼 생명공학 관련 여러 물질의 생산은 국내 수준과 비슷하며, LAK therapy를 ovarian cancer patient에 적용하였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임상실험의 수준도 국내의 수준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두번째 연사는 이상기 박사의 "Optimization of yeast expression System for the over production of anticoagulant hirudin"에 관한 강연이었다. 이강연의 요지는 thrombin-specific inhibitor인 hirudin을 yeast expression vector를 이용하여 158 mg/l를 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공정을 향상시켰다 하는 내용이었다.

세번째 연사는 Zai-ping Li박사는 사정상 참석못해서 인간의 Epilernal growth factor 생산에 관한

강연은 듣지 못하였다.

네번째는 필자의 “Transcriptional transactivation of human IGF-II gene promoter4 by HBV-X in the formation of HCC 강연이었다.

본 강연의 요지는 B형 간염바이러스 trans-activator-X가 간염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실험결과였다.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X에 의한 HCC 형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X와 transcription factor와 직접적인 interaction을 하는가였다. 강연후에 생해의과 대학의 Wen Yu-Mei박사와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상해 및 북경에 생해의과대학을 중심으로 Hepatitis에 관하여 연구하는 group이 있다는 사실과, 1년에 한번씩, 유럽의 7개 국가 학자들과 만나 Hepatitis 연구에 대해 meeting을 한다는 사실을 귀뜸하여 주었다. 우리나라 보다 더 조직적으로 간염문제에 대해 대처한다는 인상을 가졌다. Wen박사 자신은 C형 및 B형 간염바이러스의 변이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다섯째로 Yang Sheng Li 박사의 “Penicillin G Acylase”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들은 pac-2 promoter를 이용하여 PGA를 발현시켰으며 hollow fiber bioreactor를 이용하여 6-APA를 생산하였다는 강연내용이었고 이 hollow fiber reacton에 의해 얻어진, 6-APA의 specific activity는 상당히 높은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외에 오태광 박사의 “Development of new probiotics for swine” 강연, 장호남 박사의 “Secondary metabolites production by extraction of plant cell culture” 장영근 박사의 “The recovery of poly (3-OH-butyrates) from alcoligens eutrophus”에 관한 열띤 강연과 질의 토론시간을 가졌다. 대체적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중국학자들의 idea나, 응용면에 관한 의견 등이 국내 학자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회가 끝난 후 상해 미생물학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여러가지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학회를 위하여 사천성에서 왔다는 여교수의 서구화된 태도에서 중국의 서구화도 시간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4일째는 하루종일 각 연구소를 방문하였고 연구소의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부분은 따로 오태광 박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자.

연구소 방문이 끝난 저녁에 일행은 세계 최고의 산수를 자랑한다는 계림을 향하여 비행기에 올랐다. 밤늦게 계림에 도착한 일행은 저녁식사 후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라운지에 진열된 커다란 종류 석들을 보고, 계림의 산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국을 소개하는 책이나 관광안내소에는 거의 모두가 계림의 산수를 소개하기 때문에 계림은 중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계림의 인상을 익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연속극인 “여명의 눈동자”에서 여옥이 대치를 찾아가는 장면이 계림에서 촬영하였으니,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듯 하였다. 계림은 해발 150m로서 카스트르 지형이다. 이 계림의 지형은 3억년 전에 해저였으나, 지각 변동으로 인해 2억년전에 육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계림은 산수가 다른 지역보다 사뭇 다르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일정 관계로 시가지 구경을 하고 리강을 구경하기로 하였다. 일행중 아무도 낙오된 사람이 없으니 계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나 할까?

계림시가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좁다고 한다. 그래서 도보로도 관광이 가능하다고 한다. 계림도시는 역사에 비해 건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하였다가 철수할 때 거의 파괴하였다는 현지 통역인의 설명이다. 대만보다 위도도 낮은 이곳에도 일본침략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 시내 중심가는 우체국, 영화관 골동품점이 늘어서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한면을 보는 것 같았다. 잠시 중심가를 돌아보고, 리강으로 향하였다. 리강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식당과 도로까지 의자를 내놓은 카페와 같은 술집 및 국수집이 늘어서 있어 재미있는 인상을 주었다. 무술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선술집 거리라 할까. 중국 어디서나 느끼는 수 많은 사람의 행렬이 이곳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빈감도라는 도로를 따라 리강의 유람선이 출발하는 곳으로 버스는 계속 달렸다. 리강을 향하는 도로의 양옆의 풍경도 절경이었다. 기기묘묘한 산의 형태이며 바위의 모양, 해저의 지각이 육지로 변했다 하니, 바다속의 바위들을 여기저기 올려 놓은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길 옆에는 가끔 인가가 보였는데, 집한 모퉁이에 돼지우리가 있고, 그 옆에서 노는 아이들이며, 생활수준이 너무 낮은 것에 또 한번 놀랐다. 너무 넓은

나라이니 생활형태도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속에서 현지 통역인의 설명을 들으며, 차는 계속 리강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 계림은 여섯 종족이 산다고 한다. 왜족, 묘족, 좡족... 등의 이들 중 묘족의 결혼풍습은 정월보름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그남자의 발을 밟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Propose도 이정도면 상당히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중 한분이 관광도중 묘족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말에 또 한번 폭소가 터져 나왔다.

또한 이곳은 물건을 살때 무조건 bargain하라는 안내원의 설명이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소매치기 등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리강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선착장은 관광객을 끌어드리려는 수 많은 장삿꾼의 호객행위로 아수라 장을 이루었다. 동전장사, 모피장사, ... 많은 모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 산짐승이 많이 있나보다. 14C 동전이라하여 몇개를 샀다. 일행중 몇분의 동전이 앞뒤가 다른 가짜라는 것이 배위에서 밝혀지긴 했지만, 동전 값을 깎는 재미란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앞은 14C, 뒷면은 현대 주화 모형이니 가짜를 찍어내는 곳에서, 실수가 있느냐 보다. 심지어는 Cuba 동전도 있었다.

동전 몇개를 주머니에 넣고, 사진들 몇장을 찍고, 묘족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지 않으려고, 일행은 조심조심 배위에 올랐다.

리강은 계림을 가로 지르는 강으로, 봄·여름·가을에는 계림에서 83 km 남쪽에 있는 양수까지 약 8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 하나, 일행은 일정을 참작 중간에 내리는 약 6시간의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배가 출발하자, 따뜻한 차가 나왔다. 커다란 보온병을 든 안내원이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주어, 새로운 차를 공급하였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리강의 양쪽에 솟아오른 수 많은 봉우리는 일행을 한쪽의 산수화 속에 빠져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절경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봉우리가 형성될 수 있을까? 카스트 지형이나, 표면의 흙이 적은 탓인지, 돌로된 봉우리에 얇게 잔디처럼 덮은 식물층이 더욱 인상 깊었다. 수많은 암벽, 봉우리에 얽힌 전설을 안내원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행은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구

면암이라 하여 말 9마리가 서 있다는 바위 암벽에서, 6마리는 찾았으나 3마리는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였으나, 일행중 남궁 부사장님은 홀로 9마리를 찾았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니, 어떻게 임증이 가능할지?

엿을 지나는 다른 유람선을 보니 점심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리강 물을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운반해 오는지? 따로 물통이 없는 곳으로 보아, 리강 물을 그대로 쓰지 않나 생각되었다. 하여튼 중국음식 자체가 끓이고, 볶고, 튀기고 하니, 별 탈은 없으리라.

점심으로 나온 음식, 상큼한 냄새로 입맛을 돋구기 부족함이 없었다. 강에서 직접 잡은 달팽이 새우 요리 등을 먹으며, 천하제일 산수를 양 옆으로 하고 맥주를 걸치는 맛이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라.

점심 후에도 유람선은 유유히 흐르는 리강을 따라 계속 전진이었다. 군데 군데 대바구니통에 빨래를 들고 나와 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5개의 대나무를 길게 묶어서, 강을 가로지르는 배를 만들어 저어가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주민들배와 같이 고기잡이 다니는 커다란 황새 같은 새였다. 필자가 몇달전에 TV에서 우연히 본 것으로 양자강에서 어부들이 강의 고기를 잡을 때 이 커다란 새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 이 새들은 커다란 입과 긴 목을 가지고 있는데, 새의 목 밑을 배어 놓아 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강 중간에서 이 새들을 풀어 놓으면, 새들은 고기잡기에 여념이 없고, 고기를 잡은 새는 목밑의 끈 때문에 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새주인은 긴 장대를 보내 새를 끌어내어 고기를 빼내어 내고 다시 고기사냥을 보낸다 한다. 이러한 주인에 충실한 새들이 기 리강에도 있었다.

작은 움막같은 배에서, 한 식구가 모여 사는가 보다. 취사도구며 심지어는 빨래 널은것 까지 보인다. 이 식구와 곁들어 고기잡는 새가 10마리 정도 같이 살고 있으니, 새들과 손수로는 가까운가 보다. 배는 리강을 흘러 흘러 내려와 6시간 만에 임시 선착장에 닿았다. 곳곳의 호객행위, 꽤나 시끄러웠다. 사진기 밧데리가 다 소모되어, 새로운 밧데리를 사

려하니, 처음에 \$100을 달라한다. 그냥 지나가니, \$10 짜리라 하며 다른 배터리를 내어 놓는다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사진은 당분간 안찍기도 하고 부지런히 관광 bus에 올라 다음 행선지로 향하였다. 비행장으로 가는 중간에 계림 최대의 미술품 판매소에 잠시 들렀다. 그림 판매소의 그림은 모두가 가치 최고의 수준이라 할 정도로 수작이었다. 값을 보니 모두 \$1000 이상이라 감히 엄두도 못내고 다른 구경을 하였다. 윗층에 계림 박물관이라 하여, 계림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종족이 사는가하는 풍속에 관한 진열품이 가득했다. 간단한 안내 책자를 사고 구경 후 다시 일행이 있는 미술 판매소에 와보니, 일행중 몇분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알아보니 \$1000 이상의 그림 값을 깎아서 50\$~70\$ 정도에 샀다는 것이다. 바가지도 이정도면 가히 세계 최고이리라.

10분의 1로 깎고 또 반으로 깎으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긴 중국 무술영화에서 나오는 과장된 면을 보면 조금 이해는 가지만, 비행기를 타고 북경공항에 내린 두 미국 관광객이 계림에서 산 그림을 가지고 있길래, 얼마나 깎았나 물어보니, 붙어있는 가격에 반이나 깎았다고 좋아 하길래, 실망할까봐, 잘 샀다고 같이 동조해 주었다.

비행기 내에서 안내하던 오여사가 몸살이 났나보다. 골치가 아프고 으슬으슬 하다고 한다. 아스피린을 줄까 물었더니, 까만 염소똥 같은 알약을 먹는 것이다. 아마 중국 감기약인가 보다. 이 오수지 여사에 대해서 잠시 지면을 할애할까 한다. 연변 조선족으로 똑똑하고 상당히 공부를 잘 했나 보다. 북경의 민족 학교에 재학시 장학생으로 뽑혀 2년간 평양에 유학 갔다고 한다. 가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한다. 북한에 관해 궁금증이 많은 일행은 여러가지를 물어보았으나, 풍속 등 어떻게 사나는 말해주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이다. 북경의 언어국에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간 많은 사람들도 안내했다고 한다. 그 덕에 중앙정보부 주선으로 한국도 2달간 와서 여러가지를 보고 갔다한다.

한국의 산업체 방문 등, 경제 발전엔 깜짝 놀랐

다고 하면서,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해 짜증섞인 불평이다. 평양은 한가한 조용한 도시라 한다. 약혼 후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북경으로 가는 중 기차안에서 광둥 대지진을 만났다고 한다. 100만의 희생자를 낸 대지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아줌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하긴 말이 100만이지 대전 인구의 반이나 되니 말이다.

남편과는 잘 만나서, 남편은 지금 북경모대학의 사회학 교수라 한다. 하여튼 여행 시종일관 같이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니,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천지 공항을 떠나면서, 회장님이 가벼운 감사금을 쥐어주니 그리 고마워 할 수가 없었다.

북경의 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등을 1992년도 FAOB에 다녀오신 양철학 교수의 재미난 기행문이 있으니 이곳에선 생략하기로 하자.

이번 한·중 미생물학회를 계기로 학술대회 및 중국 여러곳을 다녀본 것을 참으로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10억 인구를 가진 중국, Scale 커다란 대국으로서 군림하겠다고 용트림 하는 것 같았다. 각 곳에 짓는 커다란 빌딩, 아파트이며, 서구 자본주의를 쉽게 받아 들이는 이들의 태도며, 아직은 준비가 다 안된듯 보이나, 진지한 실험실 실원들의 태도며, 이들의 노력, 곧 결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가를 주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독불장군 Style의 연구태도를 지양하여 국제화된 사회로서, 국제적인 새로운 지식의 교환으로서 좀 더 광범위한 빠른 지식의 장을 열 수 있으리라.

이런 면을 고려해 볼때, 이번 한·중 미생물학회는 서로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 끝으로, 회원 한분한분이 한명의 낙오도 없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느라고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하며,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